

# 논술시험(언어형 1)

[ 2024. 11. 16.(토) 언어형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
수험번호	성명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건강한 사회공동체와 시민의 역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제시문 1>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 시민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플라톤은 민중의 정치 참여에 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독성을 제거할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 민중의 어리석음, 경험 부족, 비전문성, 그리고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국가를 근본에서부터 썩는다는 것이었다. 특히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다수 시민이 민회에 모여서 중차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고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정부형태를 민주정과 과두정이라는 두 가지 근본유형으로 나눴다. “가난한 다수 자유민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민주정이고, 부유한 소수 귀족이 최고 권력을 잡을 때는 과두정이다.” 과두정에서는 시민 몇 명이 모든 안건을 심의하는 반면, 민주정에서는 시민 전체가 모든 공무를 결정한다. 후자는 투표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관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정부형태로 여겨진 것이다. 실제로 고대 아테네 정부는 시민단의 전권 통치라는 원칙, 즉 시민들의 뜻이 언제나 법 위에 있고 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원칙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원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통치자의 수에 상관없이, 즉 정치체의 형식이 무엇이든, 공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올바른 정부지만 사적인 이익을 위해 다스리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는 사회가 온갖 이해관계들이 무질서하게 충돌하는 싸움판으로 전락할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이와 같은 역기능을 우려하여, ‘잘못된 정부’를 제거하고 ‘올바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아테네가 보편타당성을 결여한 시민의 뜻에만 따르기보다는 안정적인 철학적 이성의 토대를 갖춘 법의 지배에 종속되기를 원했다. “법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가 나타나지 않고,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이 최고 권력을 갖지 못하는 국가에서는 민중 선동가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민중이 다수로 구성된 독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들이 스스로 다스릴 자질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한 정치인을 알아볼 판단력조차 결여하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러서 무도한 선동가에게 권력을 쥐여 준다고 염려했다. 이 경우 국정이 지식과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국가가 쇠퇴하여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철학자들과 입법자들의 이른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정과 다수 시민의 변덕스럽고 불합리한 결정을 대비시키는 전통은 플라톤에게서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나 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었으며, 이 전통은 그 뒤로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된다.

<제시문 2>

민주주의는 오랜 세월 민중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가리키던 개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이래로 그 단어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의제 원칙에 따라 선거로 정부와 입법부를 선출하긴 하지만 성인 인구의 상당 부분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참여에서 배제하는 체제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지난 몇 세기 동안 역사적인 선거권 확대 운동들을 거치면서 대의제, 투표, 선출된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드높여졌다. 보통선거권이 민주적 정부의 표준적 양상이 되었고, 이러한 대의제 체제에서 시민들은 종종 특별히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표들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준다. 그들은 선출된 대표뿐 아니라, 훨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행정가, 관료, 공직자, 판사, 넓게는 국제기구들에게까지 권리 행사를 위임한다. 이로 인해 대표들과 각 분야 엘리트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이 결국 국가를 ‘사실상의 귀족정’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문제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투표권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모든 성인의 보편적 권리로 확대되는 역사가 각종 운동과 투쟁으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종종 간과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반과 입법부를 보통선거권에 따라 선출하는 제도가 다수 국가에서 확립된 후에는 민주정 내에서 대의제가 갖는 한계가 더욱 첨예하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민주국가의 대의제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민주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도처에서 나온다. 선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

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선거운동이 종료되면 후보들은 소위 주권자들을 개의치 않는다. 자신의 투표가 정부의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시민들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정치적 효능감을 상실하는 징후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다수결 규칙을 따르는 한, 대표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소수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수의 폭정을 제도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발전 서사에 대해 사람들이 품어왔던 환상이 깨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 여전히 정치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국민의 삶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일상적인, 때로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데서 정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대의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규모 정치체제의 집회가 분명 유리하다. 단위가 작을수록 참여의 잠재적 가능성은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큰 단위에서도 시민 소외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이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현대 국가에는 타국보다 크건 작건 일련의 독자적인 결사체와 조직, 즉 다원적인 시민사회가 필요하다. 나라가 큰 경우에는 작은 경우보다 오히려 더 기존의 대의제를 넘어서는 정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민자의 증가와 함께 문화다양성의 수용 문제가 불거지면 더욱 많은 감정적 대립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깊지 않도록 오히려 단기적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표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밖에도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잠재적 쟁점들을 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실성이 높은 정책 대안들을 따져보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런 토론을 현실 정치에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기술을 고민해야 한다. 보통의 시민이 지역사회나 국가 같은 단위 내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낀다면, 이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본적 신뢰가 크게 잠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의제가 떠받치지 못하는 정치적 신뢰를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시민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시문 3>

학자들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덕을 귀하게 여기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백성을 덕으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서로에게 후하게 대할 것이고, 이득만 보여주면 민간의 풍속은 각박해질 겁니다. 각박해지면 도리에 맞게 해야 할 일들을 위배하고 이익되는 일만 추구할 것입니다. 도덕과 교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짓이 횡행해서 예의가 파괴되고, 간사한 사람들이 활개치며 나라일에 참여하는 상황을 두고 인(仁)과 의(義)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회 혼란의 싹입니다. 백성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길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물을 낳는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여 군주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정의를 중시하며 예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덕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풍속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학자집단은 현실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상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이든 해서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군사가 죽을힘을 아끼지 않고, 관직에 있는 사람이 부모를 염두에 두지 않고 군주 섬기기에 열중하여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은 모두 실익과 녹봉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아무리 인과 의를 부르짖었어도 백성들이 교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유가와 묵가들은 속으로는 탐욕스러우면서 겉으로는 마치 욕심이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는데, 이 또한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사리사욕을 가지고 이들이 정치에 참여하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대로 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모든 백성이 선하다고 전제하지도 않고, 저절로 착해지기를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성인(聖人)이 어느 정도 백성들의 행동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본바탕은 바꾸지 못합니다. 내적인 자질이 없는데 글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스승과 좋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만 낭비하고 힘만 들이는 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백성을 엄격한 상과 별로 다스려야 합니다. 이 상벌은 성인이 시대에 맞는 옳고 그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질서가

바로잡힌 세상과 혼란한 세상을 잘 관찰하여 정한 것입니다. 이를 따르기만 하면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이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정의감과 동정심만 앞서면 당장은 자신들이 가진 입을 것, 먹을 것 나누기를 안일하게 즐기겠지만, 막상 흉년 등의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서로에게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을 우선시하면 처음에는 욕심을 절제해야 하기에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간사한 꾀로 사랑과 정의를 부르짖는 자들이 함부로 정치에 참여하여 혼란을 초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의 혼란을 막고 백성들이 잘 따르게 만들면 백 배의 이익을 남기는 국가적 사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백성들도 기꺼이 세금을 낼 것입니다. 넉넉한 국가 재정으로 각종 제도가 완비되고 식량도 여유 있게 비축되면 나라가 안정되고 백성의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 <제시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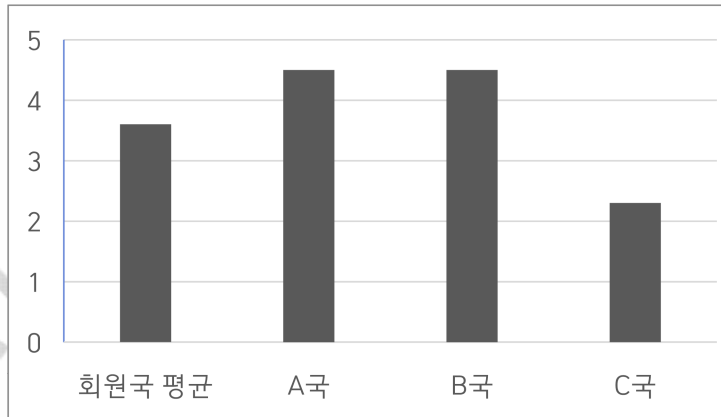
법을 위반하려는 저희의 뜻에 대해 다들 많은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만도 합니다. 우리는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차별을 금지한 1954년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도록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촉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다른 법률을 의식적으로 어긴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역설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일부 법을 어기면서 다른 법을 준수하는 것을 옹호할 수 있나요?”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이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법에 복종하는 것을 적극 옹호할 것입니다. 사람은 정당한 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법에는 불복종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고양하는 법은 정의로운 법입니다. 인간의 인격을 비하하는 모든 법은 부당합니다. 인종 분리는 영혼을 왜곡하고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에 모든 분리법은 부당합니다. 분리된 사람들에게 거저된 열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법과 부당한 법에 관해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당한 법이란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규범으로서, 정작 다수는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차이를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정당한 법은 다수가 스스로 기꺼이 따를 규범을 소수에게도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성을 법률로 제정한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법은 소수에게 부과된 규범으로, 그 소수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정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종 분리법을 제정한 앨라배마(Alabama) 주 의회가 정당하게 잘 선출되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앨라배마 주 전역에서는 흑인이 유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흑인이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데도 정작 유권자로 등록된 흑인은 단 한 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법이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그 적용은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요일에 허가 없이 행진한 혐의로 체포당했습니다. 행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례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 조례가 인종 차별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며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데 사용된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권과 공공선을 위한 양심적이고 평화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도 광적인 분리주의자처럼 법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심각한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법 하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여 마냥 억누르기만 해서는 소수를 억압하는 법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선을 믿고 만인을 위한 판단에 따라 부당한 법을 어기려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하며, 기꺼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양심에 비추어 부당한 법률을 어기고, 그 부당함에 대한 공동체의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에 갇혀 기꺼이 형벌을 받아들이는 개인이야말로, 사실 법에 대한 최고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논술시험 (언어형 1)**

[문제 2] 다원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기본가치로 공유하는 전 세계 40여 국이 가입된 국제기구에서 매년 각국 시민들의 사회 활동 경험 및 사회지표를 조사하고 있다. 이 국제기구의 회원국인 세 국가의 2023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옹호하시오.<sup>1)</sup> (40점)

주1) 자료에 제시된 정보 이외의 다른 모든 조건은 A, B, C국에서 동일하다고 가정함.

<자료 1> 사회 활동 경험<sup>2)</sup>



주2) 국민청원, 정책공청회, 서명운동,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0(최저)~5(최고)점으로 나타냄.

<자료 2> 사회지표

항목	회원국 평균	A국	B국	C국
12년 의무교육 기간 중 정치사회화 교육 기간(년)	9	4	12	9
정치 효능감 <sup>3)</sup>	36	47	46	21
의견 대립 지수 <sup>4)</sup>	34.1	55.3	39.3	40.5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 <sup>5)</sup>	3.2	6.4	3.1	2.3
기피시설 건립 반대 지역주민 시위 건수(인구 만 명당)	0.6	2.4	0.6	0.3
정부 효과성 <sup>6)</sup>	1.5	0.9	1.7	2.3
좋은 나라 지수 <sup>7)</sup>	0	-3	4	-2

주3) 시민 스스로 정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의 강도(최소 0, 최대 50).

주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성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의견이 다른 정도(최소 0, 최대 100).

주5) 사회적으로 표출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공공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주6)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이행 능력, 정치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 정도(최대 2.5).

주7) 번영, 형평, 복지 수준을 종합한 회원국 간 비교 평가 지수(최소 -10, 최대 10).

[문제 3] D국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정부 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 학생이 D국 국민이라면 이 법안에 찬성할지 또는 반대할지 오직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논술시험(언어형 2)

[ 2024. 11. 16.(토) 언어형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
수험번호	성명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논술시험 (언어형 2)

[문제 1] <제시문 1> ~ <제시문 4>는 예술에 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40점)

### <제시문 1>

“낱말들이 스스로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문장은 작품을 해석할 때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텍스트(text)의 근간이 되는 자율적 언어 자체를 중시하거나 혹은 독자가 자신의 의도로써 텍스트를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문학 작품은 작가의 정신과 의도를 반영하는 매개체로 독자와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도구이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 발화자는 특정한 말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청자에게 전달하려고 한다. 작가도 작품을 만들 때 그 의도를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있다. 독자는 마치 대화에서 청자가 그렇듯,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대화적 관심’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작가는 인물, 구성, 배경, 문체 등 여러 요소들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조합하여 다양한 형태의 표현 양식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세계관을 표현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은 작가의 창작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가 변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자율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변화하는 ‘의미’라는 개념에 근거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객관적인 작품 해석을 파괴한다. 어떤 문학 작품이 독자들, 평자들, 또는 다른 작가들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은 텍스트의 ‘의미’와 그 의미가 다양한 맥락에서 드러나는 ‘의의’를 구분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 ‘의미’는 저자가 특정 기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고정된 뜻인 반면, ‘의의’는 그 의미와 감상자, 상황, 또는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건 작품의 의미가 아니라, 의미와 그것이 놓여진 맥락과의 관계일 뿐이다. 의의는 항상 관계를 내포하지만, 작품의 의미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축이다. 예를 들어, 시인이 쓸쓸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시를 썼으나, 어떤 독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감상자는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데 실패했지만, 그 시의 의미에 대한 타당한 해석은 여전히 쓸쓸한 분위기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여기서 작품의 의미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나는 오늘 공원에 간다.”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나의 문장은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수 있다. 한 작품을 해석할 때도 해석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작품에서 한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작가가 의도한 특정 의미가 확정되려면 그 의미를 결정짓는 요인이 필요하고, 그 요인은 바로 작가의 의도이다. 작가의 의도에 대한 오독이나 자위적인 해석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니체(Nietzsche)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 개념을 통해 인간이 기존의 도덕적 틀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내면적 힘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자아를 극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나치당의 인종적 우월성을 강조하고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악용되었고, 제국주의적인 국가 권력을 찬양하는 사상으로 오해되었다.

### <제시문 2>

슐라이어마허(Schleiermacher)는 작품을 분석할 때 흔히 저자의 의도 내지는 ‘한 인간 저자의 총체성을 보편적으로 관조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작품 밖에 있는 저자의 삶을 토대로 작품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작품 생산의 주체를 중시하는 관점은 해석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역사주의적, 실증주의적, 정신분석 이론 등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가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감정과 경험 등 다양한 요인들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는 방식은 단순히 그림 그 자체의 세부적인 재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예술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작품의 의미를 감상자의 삶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과정이다. 감상자는 자신의 선행적 배경, 일상의 경험, 축적된 지식에 따라 작품에 다양한 시야로 접근한다. 호퍼(Hopper)의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은 어두운 밤 도시의 한 모퉁이에 있는 식당의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가 보이며, 식당 안에는 세 명

## 논술시험 (언어형 2)

의 손님과 한 명의 직원이 있다. 남성은 회색 중절모와 짙은 색 정장을 입고 식탁 위에 팔을 얹고 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은 붉은 머리에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이들의 왼쪽에 앉아 있는 또 다른 남성은 뒷모습만 보이고 어두운 정장과 모자를 쓰고 있다. 식당 직원은 흰색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 손님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작품을 본 관람자 중 과거에 깊은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림 속 조명과 인물들에서 쓸쓸함과 고독감을 읽는다. 그러나 외로움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단순히 도시 풍경을 묘사한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식당의 실내 모습에서 안락함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작품 감상에 투영되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어떤 그림에서 원근법을 통해 만들어진 환영을 진짜처럼 느끼는 것도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원근법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세계를 사실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예상에 맞춰 특정 방식으로 구현된 것이다. 이렇듯, 그림 속 원근법이나 세부 묘사는 단순히 실제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기보다, 보는 사람의 마음과 인식 구조에 의해 재구성된다. 어떤 인식적 출발점과 경험적 토대는 작품에 대한 감상자의 이해와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예술 작품 해석의 본질은 우리 외부 세계에 있지 않고 우리 내부에 있다. 즉, 작품을 해석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행위이다. 우리가 그림이나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제시문 3>

예술 작품을 해석하려는 시도는 그 안에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진다. 그림을 보거나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작품에 숨어있는 상징이나 철학적 메시지를 파악하려 한다. 손택(Sontag)은 <해석에 반대한다>에서 상징적 내용을 추출하고 숨겨진 의미를 해독하려는 해석의 지배적인 방식이 오히려 예술의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경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녀에 따르면 이러한 분석은 예술을 단순한 퍼즐로 만들어 그 미학적 힘을 앗아가 버린다. 손택은 예술을 진정으로 감상하려면 그것의 형식을 수용하고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경험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예술이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역사적 배경이나 작곡가의 의도를 분석하기보다는, 그 음악을 듣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 예술은 관객의 주관적 경험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와 감동을 발산한다. 손택의 관점에서,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는 것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느끼는” 것이다. 예술 작품을 접할 때 관객은 단순히 외부에서 주어진 해석을 받아들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닌 능동적 주체라는 점에서 손택의 주장은 바르트(BARTHES)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이제 우리는 글쓰기에 미래를 돌려주기 위해 글쓰기의 신화를 전복시켜야 한다. 독자의 탄생은 저자의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바르트의 이 폭탄 같은 선언은 저자나 텍스트를 과대평가하며 독자의 역할을 소홀히 해 온 것에 대한 일종의 반기이다. 이는 문학 감상에서의 관심 대상을 텍스트에서 독자로 바꾸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즉, 텍스트 해석의 권한을 창작자가 아닌 관객에 부여하고, 저자가 작품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적인 존재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바르트는 텍스트에 전통적으로 부여된 폐쇄된 의미체계를 비판하며, 관객이 저자의 의도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미를 창조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바르트의 입장에서 텍스트는 독자와 관객의 독창적인 관점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고 재구성되는 열린 존재가 된다. 읽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글을 쓰는 것이다.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 이해에 있어 관객에게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르트는 창작자의 권위를 해체함으로써 관객이 자유롭게 해석하고 스스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손택은 해석 자체의 필요성에 도전하며, 예술을 감각적이고 정서적으로 충만하게 경험할 것을 강조한다. 두 사람의 관점은 비록 서로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관객의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예술 경험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즉, 바르트와 손택은 예술의 감상과 의미 창출에서 관객의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창작자의 의도를 넘어서서 감상자의 감정과 주관적 해석에 집중함으로써 이들은 예술과 관객 간의 관계를 재정의한다.

## &lt;제시문 4&gt;

모든 작품은 창작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창작자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문학 작품의 내용은 작가와 작중 인물의 삶과 그 시대를 반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가령 작가가 작품의 소재를 고른다든지, 특정한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주제를 다룬다든지, 또는 상징이나 이미지를 선택하는 따위의 문체는 작가의 삶을 떠나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디까지나 작가 특유의 문학관이나 세계관에서 비롯된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어진 작품을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작가의 물질적, 정신적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넓게는 작가의 세계관이나 인생관 또는 정치관, 그리고 그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문학관, 좁게는 그의 교육, 생활 수준, 가족 상황, 인간관계, 심지어는 지극히 사사로운 습관이나 취미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이 다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작품 해석에 있어서 창작자의 삶과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은 문학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공통되게 적용된다. 드가(Degas)는 19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로 그의 작품은 단순한 미적 표현을 넘어서 시대상과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드가는 원래 파리의 부유한 은행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업을 잇기 위해 법률을 공부했지만, 예술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못하고 1855년에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초기에 도덕적 메시지와 명확한 구도를 중시하는 고전주의 화풍을 따른 역사화를 주로 그렸지만, 1870년대 중반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의 화풍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시력 악화를 겪으면서 어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꼈고, 이는 그가 그리던 대상과 표현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시각적인 제약은 드가에게 새로운 감각적 체험을 강요했으며, 그가 그리던 인물들에 대한 접근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드가는 고전적인 역사화 속 귀족들 대신 현실의 인물들, 특히 파리의 하류층 여인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는 자신이 경험한 신체적 제약과 심리적 불안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작품에 깊이 투영된 것이다. 드가의 그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상은 발레리나들이다. 당시 파리의 발레리나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공연을 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라 차별과 역압을 받던 하층 계급의 소녀들이었다. 그들은 공연을 위해 고된 훈련을 해야 했으며 때론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고단함과 고통스러움을 견뎌온 이유는 발레리나라는 삶이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드가의 그림은 이러한 하류층 여성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진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 드가는 무대 뒤편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포착하여, 그들의 고통과 일상적인 어려움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이는 드가가 단지 미적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 소녀들의 삶을 깊이 이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드가의 파스텔화 기법은 그의 감정적인 접근을 더욱 강조하며 부드럽고 따뜻한 색조로 하류층 여성들의 고통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드가의 작품은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의 개인적 경험—특히 신체적 고통과 감정적 공감—이 어떻게 예술적 표현으로 승화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논술시험 (언어형 2)**

[문제 2] <자료 1> ~ <자료 3>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을 활용하여 [문제 1]의 두 입장을 각각 지지하는 논리를 제시하시오. (40점)

<자료 1>

아래 <자료 1-1>은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한 두 예술 교육 프로그램<sup>1)</sup>에 대한 설명이다. <자료 1-2>와 <자료 1-3>은 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이루어진 자기 평가와 전문가 평가 결과<sup>2)</sup>를 보여준다.

- 주1) 각 프로그램 당 50명의 어린이들이 무작위로 배정되었음. 두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두 프로그램은 동일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음.
- 주2) <자료 1-2>의 자기 평가와 <자료 1-3>의 전문가 평가에서 각 항목은 5점 만점으로 평가됨(0점: 매우 낮음, 5점: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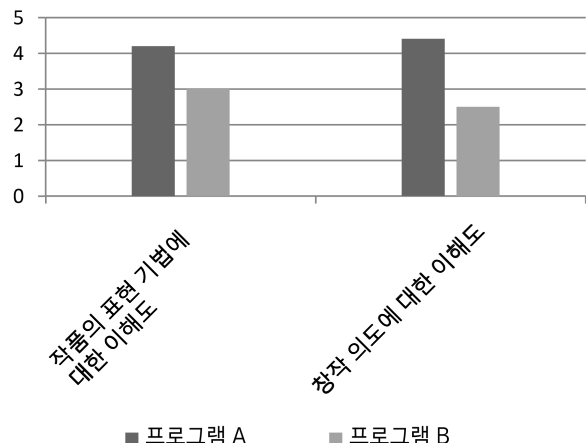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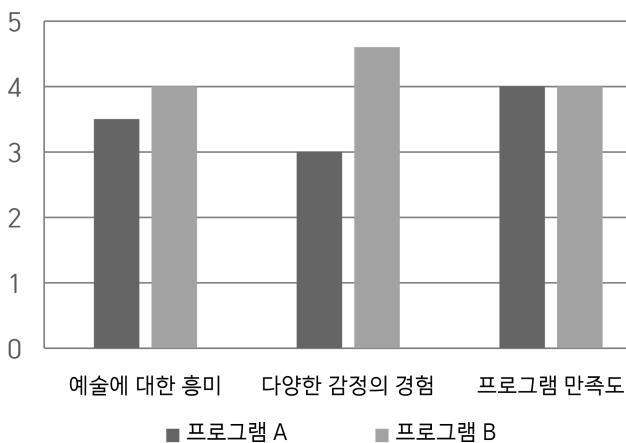
<자료 1-1> 프로그램 설명

대상 예술 작품: 이중섭의 <소> 연작	
프로그램 A	프로그램 B
도슨트(docent) <sup>3)</sup> 가 이중섭의 생애와 창작 당시의 역사적 맥락, 독특한 색채 사용과 표현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 후, 어린이들과 작품의 의미와 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중섭의 <소> 연작을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로 변환하여, 어린이들이 작품의 구성 요소,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

주3) 미술관에서 방문객들에게 작품과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자.

<자료 1-2> 프로그램 참가자 자기 평가 평균

<자료 1-3>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전문가 평가 평균



## 논술시험 (언어형 2)

### <자료 2>

박경리 작가의 <토지>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개인의 운명과 역사의 조류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폭넓게 조망한 작품이다. 한 대학에 개설된 <한국문학의 이해> 수업에서 학생들이 이 작품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였다. 아래의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자료<sup>4)</sup>와 표는 학생들의 전공에 따라 감상문에서 많이 사용된 핵심 단어와 단어별 출현 빈도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 <전공 A>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갈등	32%
자아	28%
무의식	16%
정체성	14%
기타	10%

#### <전공 B>



핵심 단어	출현 비율
경제	30%
계층	26%
착취	20%
토지	16%
기타	8%

#### <전공 C>



핵심 단어	출현 비율
문학적	24%
상징	21%
구조	20%
주제	18%
기타	17%

주4) 왼쪽에 제시된 워드 클라우드에서 글자 크기는 해당 단어의 출현 비율에 정비례함.

### <자료 3>

아래 그래프는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 결과이다. 모든 참가자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 지역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sup>5)</sup> 참가자의 현재 정서 상태,<sup>6)</sup> 자녀 유무를 물었다. 이후 참가자들을 A, B, C 세 조건에 각각 400명씩 무작위로 배정하고,<sup>7)</sup> 각 조건의 참가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어린아이의 얼굴 사진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전쟁 지역 인도적 지원 정책 지지도와 현재 느끼는 정서 상태를 다시 물었다.<sup>8)</sup>

\* 조건별 사진 감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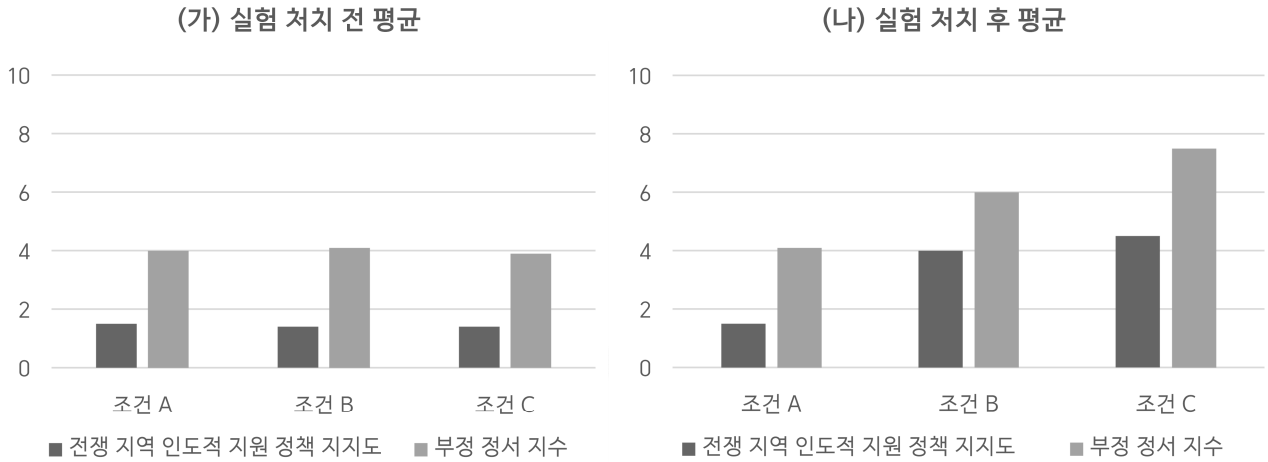
조건 A (400명): 사진만 보여주고 사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

조건 B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임을 알려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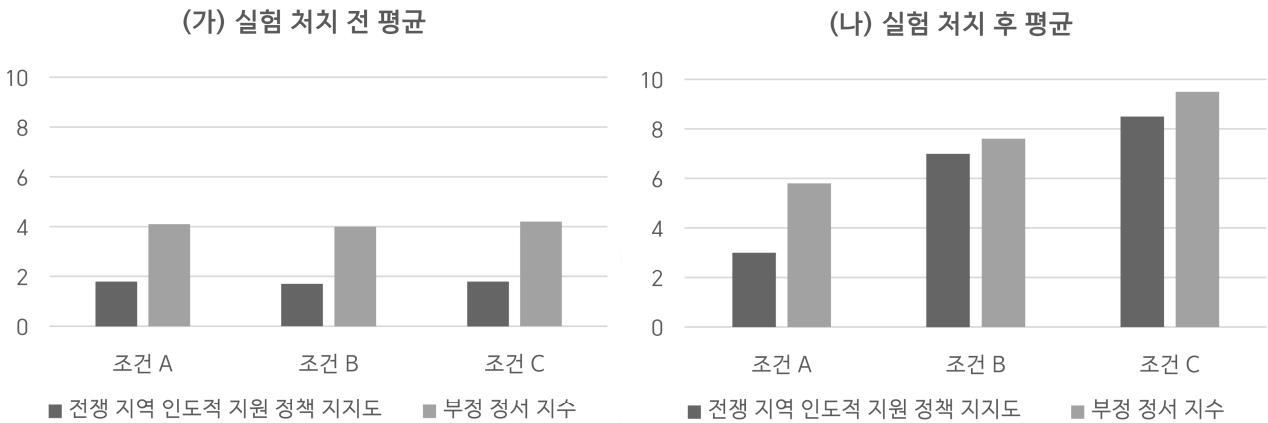
조건 C (400명): 사진의 제목과 사진 속 아이가 전쟁고아라는 정보, 그리고 사진작가 역시 전쟁고아 출신임을 알려줌.

## 논술시험 (언어형 2)

<자료 3-1> 자녀가 없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자료 3-2> 자녀가 있는 참가자들의 응답 결과



- 주5) 0에서 10까지로 측정하였고, 수치가 높을수록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음을 의미함.
- 주6) 질문 시점에서 슬픔, 분노, 불안, 공포의 네 가지 부정 정서를 0에서 10까지로 측정한 값임.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 정서가 강함을 의미함.
- 주7) 세 조건 간 참가자들의 개인 및 사회적 특성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가정함.
- 주8) 사전 설문 문항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 결과와 직접 상관이 없는 다양한 주제의 문항들을 추가로 질문하였음.

**[문제 3]** 최근 한 극단이 유명 고전소설을 파격적으로 해석하여 공연한 연극을 두고 논란이 있다. 이 연극은 원작의 내용을 거의 대부분 새로 구성하여 제작되었고, 창작 당시의 사회상도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연극에서 원작에 대한 해석이 왜곡되었다고 비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이 연극이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재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학생은 이 두 가지 평가 가운데 어떤 쪽을 지지하는지 오직 하나를 선택하고, [문제 1]의 제시문과 [문제 2]의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본인의 선택을 정당화하시오. (20점)

# 논술시험(수리형 1)

[ 2024. 11. 17.(일) 수리형 1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
수험번호	성명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논술시험 (수리형 1)**

[문제 1]

다음 <제시문1> ~ <제시문3>을 읽고 [문제 1-i] ~ [문제 1-iii]을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30점)

<제시문1>

곡선  $y=f(x)$  위의 점  $(a, f(a))$ 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f'(a)(x-a)+f(a)$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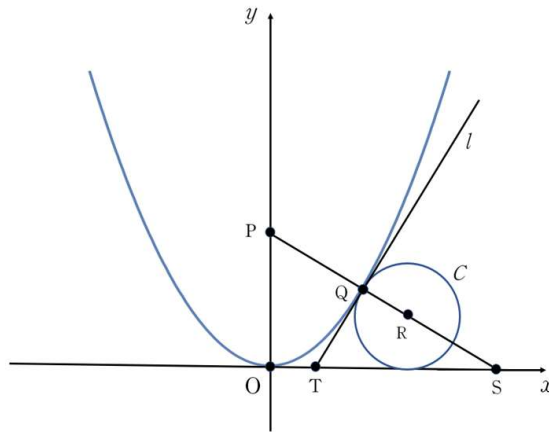
<제시문2>

좌표평면 위의 두 직선  $y=mx+n, y=m'x+n'$ 에 대하여

- (1)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mm'=-1$ 이다.
- (2)  $mm'=-1$ 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

<제시문3>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x^2$  위의 한 점을 제1사분면 위에서 택하고 이를 Q라 한다. 곡선  $y=x^2$  위의 점 Q에서의 접선을 l이라 한다. 직선 l이 x축과 만나는 점을 T라 한다. 점 Q를 지나고 직선 l에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P라 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S라 한다. 직선 l과 점 Q에서 접하고, 동시에 x축과 접하는 원을 C라 한다. 단, 원 C와 x축의 접점의 x좌표는 양수이다. 원 C의 중심을 R라고 하고 그 둘레의 길이를 L이라 한다. 좌표평면의 원점을 O라 한다.



[문제 1-i] <제시문3>에서 주어진 점 Q,S,T에 대하여,  $\frac{QS \times ST}{QT^3}$ 의 값은 점 Q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i] <제시문3>에서 주어진 점 P,Q,R에 대하여,  $\frac{1}{2}PQ + QR - OP$ 의 값은 점 Q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보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ii] <제시문3>에서 정의된 점 Q의 x좌표를 a라 할 때, <제시문 3>에서 정의된 원 C의 둘레의 길이 L에 대하여  $\lim_{a \rightarrow \infty} \frac{L}{PQ^2}$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문제 2]

다음 <제시문1>과 <제시문2>를 읽고 [문제 2-i] ~ [문제 2-iv]를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40점)

## &lt;제시문1&gt;

함수  $g(x)$ 가 미분가능하고  $g'(b)=0$ 일 때,  $x=b$ 의 좌우에서  $g'(x)$ 의 부호가

-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g(x)$ 는  $x=b$ 에서 극대이고, 극댓값  $g(b)$ 를 갖는다.
-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g(x)$ 는  $x=b$ 에서 극소이고, 극솟값  $g(b)$ 를 갖는다.

## &lt;제시문2&gt;

- 함수  $f(t)$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f(t) = \begin{cases} t^2 + 2t & (t > 0) \\ -t & (t \leq 0) \end{cases}$$

- 함수  $g(x)$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g(x) = \frac{2x^3}{3} - 2x^2 + 12x + \int_{-10}^x (1-t)f(t)dt - \int_{-10}^x (4-t)f(t-3)dt$$

[문제 2-i]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f(t)$ 에 대하여  $\int_{-2}^a f(t)dt = \frac{32-3a}{3}$ 를 만족시키는 양의 실수  $a$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i]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f(t)$ 에 대하여 정적분  $\int_{-2}^2 f(t)|t-1|dt$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ii]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f(t)$ 에 대하여 정적분  $\int_{-2}^2 f(t^2-2)|t-1|dt$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v]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g(x)$ 를 생각하자. 열린구간  $(-10, 10)$ 에서  $g(x)$ 가 극값을 갖는  $x$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논술시험 (수리형 1)

## [문제 3]

다음 <제시문1> ~ <제시문3>을 읽고 [문제 3-i] ~ [문제 3-iii]을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30점)

## &lt;제시문1&gt;

함수  $f(x)$ 가 미분가능하고  $f'(a)=0$ 일 때,  $x=a$ 의 좌우에서  $f'(x)$ 의 부호가

-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f(x)$ 는  $x=a$ 에서 극대이고, 극댓값  $f(a)$ 를 갖는다.
-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f(x)$ 는  $x=a$ 에서 극소이고, 극솟값  $f(a)$ 를 갖는다.

## &lt;제시문2&gt;

함수  $f(x)$ 가  $x=a$ 에서 미분가능하고  $x=a$ 에서 극값을 가지면  $f'(a)=0$ 이다.

## &lt;제시문3&gt;

정수  $a, b, c$ 에 대하여 삼차함수  $f(x)=4x^3+3ax^2+2bx+c$ 가 다음의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 방정식  $f(x)=0$ 은 서로 다른 세 실근  $a_1, a_2, a_3$ 을 가진다. (단,  $a_1 < a_2 < a_3$ )
- 모든 정수  $n$ 에 대하여 닫힌구간  $[n, n+1]$ 은 세 실근  $a_1, a_2, a_3$ 중 많아야 하나를 포함한다.

[문제 3-i] <제시문3>에서  $a=-1, b=-3$ 일 때, 가능한 모든 함수  $f(x)$ 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3-ii] <제시문3>에서  $b=0$ 이고 세 실근  $a_1, a_2, a_3$ 중 두 수가 닫힌구간  $[0, 2]$ 에 포함될 때, 가능한  $|a_1|+|a_2|+|a_3|$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3-iii] [문제 3-ii]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  $f(x)$ 에 대하여, 정수 계수를 가지는 사차함수  $y=g(x)$ 가  $g'(x)=f(x)$ 이고 사차방정식  $g(x)=0$ 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한다. 이때 가능한 함수  $g(x)$ 를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논술시험(수리형 2)

[ 2024. 11. 17.(일) 수리형 2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
수험번호	성명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논술시험 (수리형 2)

## [문제 1]

다음 <제시문1>과 <제시문2>를 읽고 [문제 1-i] ~ [문제 1-iii]을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30점)

## &lt;제시문1&gt;

함수  $f(x)$ 가 닫힌구간  $[a, b]$ 에서 연속일 때, 곡선  $y=f(x)$ 와  $x$ 축 및 두 직선  $x=a$ ,  $x=b$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S$ 는  $S = \int_a^b |f(x)| dx$ 이다.

## &lt;제시문2&gt;

$-3 \leq t \leq 0$ 인 임의의 실수  $t$ 에 대하여 곡선  $y=3x^2-3$ 과  $x$ 축 및 두 직선  $x=t$ ,  $x=t+1$ 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g(t)$ 라 한다.

[문제 1-i]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g(t)$ 에 대하여,  $g\left(-\frac{3}{2}\right)$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i]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g(t)$ 의 식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ii] <제시문2>에서 정의된 함수  $g(t)$ 의 최솟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논술시험 (수리형 2)**

[문제 2]

다음 <제시문1>과 <제시문2>를 읽고 [문제 2-i] ~ [문제 2-iv]를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4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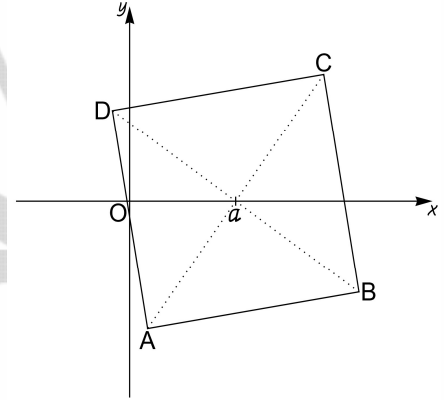
<제시문1>

두 대각선의 교점이  $x$ 축 위에 놓여있는 정사각형 ABCD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 $\overline{AB} = 2\sqrt{2}$ 이고 점 D의  $y$ 좌표는 0보다 크다.
- 두 대각선의 교점이  $(a, 0)$ 일 때, 대각선 AC의 기울기는  $a$ 이다.
- 꼭짓점 A, B, C, D는 시계바늘이 도는 반대 방향으로 주어진다.

<제시문2>

임의의 실수  $a$ 에 대하여 <제시문1>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a, 0)$ 일 때, 점 A의  $y$ 좌표와 점 D의  $y$ 좌표를 각각 함수  $f(a)$ 와  $g(a)$ 로 정의하자. 제시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문제 2-i] <제시문2>에 주어진 함수  $f(a)$ 와  $g(a)$ 를 각각  $a$ 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i] <제시문2>에 주어진 함수  $f(a)$ 와  $g(a)$ 에 대하여,  $|f(a) - g(a)| = 1$ 이 되는  $a$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ii] <제시문1>에 주어진 정사각형 ABCD의 두 대각선의 교점이  $(a, 0)$ 이고 직선 AC가 원  $x^2 + y^2 = 4$ 와 접할 때,  $a^2$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v] <제시문2>에 주어진 함수  $f(a)$ 에 대하여,  $\left| f\left(2\sin\left(\frac{\pi}{2}a\right)\right) \right| = \sqrt{3}$ 이 되는 모든 양수  $a$ 를 작은 것부터 크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수열  $\{a_n\}$ 으로 정의하자. 이때 부등식  $\sum_{k=1}^m a_k > 2025$ 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m$ 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논술시험 (수리형 2)**

[문제 3]

다음 <제시문1> ~ <제시문3>을 읽고 [문제 3-i] ~ [문제 3-iii]을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30점)

<제시문1>

함수  $y=f(x)$ 에서  $x$ 의 값이  $a$ 에서  $a+\Delta x$ 까지 변할 때의 평균변화율은  $\frac{\Delta y}{\Delta x} = \frac{f(a+\Delta x)-f(a)}{\Delta x}$ 이다. 여기서  $\Delta x \rightarrow 0$ 일 때, 평균변화율의 극한값  $\lim_{\Delta x \rightarrow 0} \frac{\Delta y}{\Delta x} = \lim_{\Delta x \rightarrow 0} \frac{f(a+\Delta x)-f(a)}{\Delta x}$ 가 존재하면 함수  $y=f(x)$ 는  $x=a$ 에서 미분가능하다고 한다. 이때 이 극한값을 함수  $y=f(x)$ 의  $x=a$ 에서의 순간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 하고, 기호로  $y=f'(a)$ 와 같이 나타낸다.

<제시문2>

임의의 실수  $a$ 에 대하여, 곡선  $y=-x^2$ 과 직선  $y=ax+a$ 의 교점의 개수가  $f(a)$ 가 되도록 함수  $f(x)$ 를 정의하자.

<제시문3>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사차함수  $g(x)$ 와 <제시문2>의 함수  $f(x)$ 는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 사차방정식  $g(x)=0$ 은 허근을 가지지 않는다.
- 함수  $h(x)=f(x)g(x)$ 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 함수  $h(x)=f(x)g(x)$ 는 열린구간  $(2, 10)$ 에서 미분가능하다.

[문제 3-i] <제시문2>의 함수  $f(x)$ 에 대하여,  $f(0)+f(1)+f(2)+f(3)+f(4)+f(5)$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3-ii] <제시문3>의 함수  $h(x)$ 에 대하여, 가능한  $h(-1)+3h(2)+5h(5)$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3-iii] <제시문3>의 함수  $g(x)$ 에 대하여 두 방정식  $g(x)=0$ 과  $g'(x)+5x^3-20x^2=0$ 의 실근이 모두 정수이다. 이때 가능한 사차함수  $g(x)$ 의 개수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 논술시험(수리형 3)

[ 2024. 11. 17.(일) 수리형 3교시 ]

모집단위	전형유형	논술우수
수험번호	성명	

## □ 답안작성 유의사항

- 가. 시험 시간은 100분이며, 문제별 답안은 반드시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작성해야 합니다.(문제번호와 답안번호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나. 문제별로 해당되는 답안 작성영역에 다른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경우 평가하지 않습니다.
- 다. 답안은 지정된 작성영역 내에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작성영역을 초과하여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 라. 답안 작성영역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됩니다. 인적사항(성명, 서명 등) 또는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를 하는 경우 결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마. 흑색 필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연필·샤프 사용가능, 답안작성 중 필기구 종류 또는 색상 변경 불가)
- 바. 답안 수정 시에는 취소선을 긋거나 지우개로 지워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 답안지 표지 상단에 본인의 인적사항(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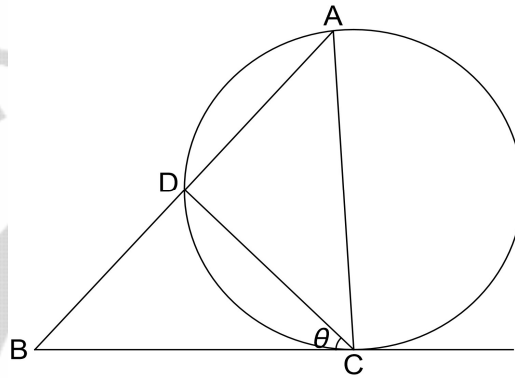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 1-i] ~ [문제 1-iv]를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40점)

## &lt;제시문&gt;

좌표평면 위의 세 점 B, C, 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 점 B와 C의 좌표는 각각  $(-4,0)$ 과  $(0,0)$ 이다.
- 점 D의  $y$ 좌표는 양수이고, 선분 CD의 길이는 3이다.

점 C에서 직선 BC와 접하고, 점 D를 지나는 원을 생각하자. 직선 BD가 점 D를 제외하고 이 원과 다시 만나는 점을 점 A라 하자.  $\angle BCD = \theta$ 라 할 때, 함수  $f(\theta)$ 를 선분 AD의 길이로 정의하자. 단, 원이 점 D에서 직선 BD와 접할 경우에는, 점 A를 점 D로 정의하고 그 때의  $\theta$ 의 값을  $\alpha$ 라고 하며  $f(\alpha) = 0$ 으로 정의한다.  $0 < \theta < \alpha$ 일 때, 제시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문제 1-i] <제시문>에 주어진 원의 반지름을  $\theta$ 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i] <제시문>에 주어진  $\alpha$ 와 원에 대하여  $\cos \alpha$ 의 값과 원의 반지름을 각각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ii] <제시문>에 주어진 함수  $f(\theta)$ 에 대하여,  $f(\frac{\pi}{3})$ 와  $f(\frac{\pi}{2})$ 의 값을 각각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1-iv] <제시문>에 주어진 함수  $f(\theta)$ 의 값이 선분 AC의 길이와 같을 때,  $\cos \theta$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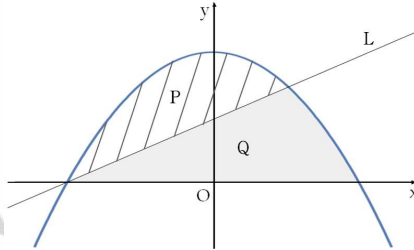
**논술시험 (수리형 3)**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문제 2-i] ~ [문제 2-iii]을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30점)

<제시문>

아래 그림과 같이 곡선  $y=1-x^2$ 과  $x$ 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직선  $L:y=\frac{x}{2}+\frac{1}{2}$ 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때 윗 부분의 도형을 P라 하고 아랫 부분의 도형을 Q라고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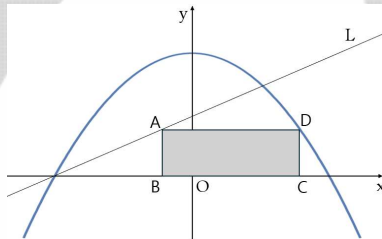


[문제 2-i] <제시문>에서 주어진 도형 P의 넓이  $S_P$ 와 도형 Q의 넓이  $S_Q$ 의 비율  $\frac{S_P}{S_Q}$ 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i]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문>에서 주어진 도형 Q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 (1) 점 B와 점 C는  $x$ 축 위에 있다.
- (2) 점 A는 직선  $L:y=\frac{x}{2}+\frac{1}{2}$  위에 있고, 점 D는 곡선  $y=1-x^2$  위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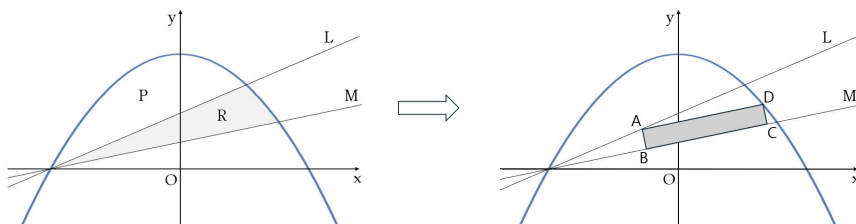
이 조건들을 만족하면서 직사각형 ABCD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의 점 C의 좌표를  $(q,0)$ 이라 하고,  $w=q-\frac{1}{2}$ 로 정의하자. 이때  $8w^3+15w^2+3w$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2-iii]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문>에서 주어진 도형 Q를 직선  $M:y=\frac{x}{4}+\frac{1}{4}$ 로 나누어 윗 부분의 도형을 R이라 하자. 이때 도형 R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ABCD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 (1) 점 B와 점 C는 직선  $M:y=\frac{x}{4}+\frac{1}{4}$  위에 있고,  $\overline{BC} = \frac{\sqrt{17}}{4}$  이다.
- (2) 점 A는 직선  $L:y=\frac{x}{2}+\frac{1}{2}$  위에 있고, 점 D는 곡선  $y=1-x^2$  위에 있다.

이때 점 B의 좌표를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논술시험 (수리형 3)**

[문제 3]

다음 <제시문1> ~ <제시문3>을 읽고 [문제 3-i] ~ [문제 3-iii]을 문항별로 풀이와 함께 답하시오. (30점)

<제시문1>

세제곱하여 실수  $a$ 가 되는 수, 즉 방정식  $x^3 = a$ 를 만족시키는 수  $x$ 를  $a$ 의 세제곱근이라 한다. 실수  $a$ 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뿐이고, 이것을  $\sqrt[3]{a}$ 로 나타낸다.

<제시문2>

실수  $a, b$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항식의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 $(a + b)^3 = a^3 + 3a^2b + 3ab^2 + b^3$
- $(a - b)^3 = a^3 - 3a^2b + 3ab^2 - b^3$

<제시문3>

주어진 실수  $r$ 에 대하여 수열  $\{a_n\}$ 을  $a_n = r \times \left(\frac{1}{2}\right)^{n-1}$ 으로 정의하고,  $A_n = \sqrt[3]{\frac{n}{4} + (-1)^n a_n}$ 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b_n$ 이라 하자. 만약  $A_n$ 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두 개 존재하면 두 수 중에서 더 큰 수를  $b_n$ 이라 한다.

[문제 3-i] <제시문3>의 수열  $\{b_n\}$ 에 대하여  $r = \frac{4}{3}$ 일 때,  $b_1$ 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3-ii] <제시문3>의 수열  $\{b_n\}$ 에 대하여  $r = \frac{4}{3}$ 일 때,  $\sum_{k=1}^{150} b_k = b_1 + b_2 + \dots + b_{150}$ 의 값을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문제 3-iii] <제시문3>의 수열  $\{b_n\}$ 에 대하여 실수  $r$ 이  $1 < |r| < 2$ 일 때, 가능한  $\sum_{k=1}^{150} b_k = b_1 + b_2 + \dots + b_{150}$ 의 값을 모두 구하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